

5월을 보내며 떠올린 몇 가지 생각들



이홍재의 세상만사

주필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섭던 날, 떨어
져 누운 꽃잎마저 눈물짓는데. 뻗쳐오르
던 우리의 보람도 서운케 무너지고 말았
으니. 아, 38년 전 그날을 어찌 잊을 수 있
으랴.

또다시 5월을 떠나보낸다. 벌써 서른여
덟 번째다. 꽃들이 하나둘 지고 있다. 봄
날이 간다.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닦하
라." 그거야 경지에 오른 시인의 말일 뿐.
때아닌 낙화(落花)의 애절함을 겪었던
우리는 오늘도 '바람'을 찾아 헤맨다.

삼백여살 날 하냥 슬픔에 젖어 살아 온
세월. 살아남은 우리는 한없는 부끄러움
속에서도 그 모진 세월을 견뎌왔다. 다만
가슴속에 비연(悲戀) 하나는 남겨 두었
다. 꼭 찾아내리라. 순한 생명을 앗아간
그 광풍(狂風)의 근원을 찾아야 하리라.
무고한 광주 시민을 확실한 원흉(元兇)

을 꼭 찾아 처단해야 하리라.
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발표
명령자는 아직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래도 그가 누구인지도 우리 모두
다 안다. 전두환. 다만 우리는 확인하고
싶을 뿐이다. 그가 뒤늦게나마 사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이다.
돌이켜 보건대 당시 공수부대의 만행
은 끔찍했다. 맨몸의 시민들을 곤봉으로
내리치고 날선 대검으로 마구 찌르고. 이
들의 만행을 피해 골목길로 숨어들면, 그
아비규환(阿鼻叫喚) 속에서도 노인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것이 먼 일
이당가. 6·25 때도 이라지는 않았는데..."

김중배는 왜 중도 포기했나

6·25 하면 '부역'이란 단어가 머릿속에
'연관 검색어'로 자동 생성된다. 그 당시
적군에 부역한 사람들은 가혹한 테러를
당하거나 '즉결 처분' 형식으로 목숨을 잃
어 갔다. '부역(附逆)'이란 역적(逆)에
게 붙었다(附)는 뜻이다. '반역 집단'을
돕는 행위나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
다. 원래는 왕조시대 왕권에 대항하는 행
위 등을 지칭했는데, 6·25전쟁 때 널리 쓰

인 이후 우리의 뇌에 무시무시한 단어로
각인됐다. 부역자는 정의의 외면하고 불
의에 기댄 사람들이다. 박정희·전두환 등
독재 정권을 창출하고 지탱하는 데 적극
협력했던 이들도 부역의 오명을 피할 수
없었다.

어찌 됐든 지금도 '부역'이란 말은 '적
에게 붙어먹은 세력'이란 뜻으로 자주 사
용된다. 최근만 해도 광주시장 선거에 출
마한 이용섭(67) 후보에 대한 '군사정권
부역' 논란이 있었다. 특히 선거 초반 경
선에 나섰던 최영호 전 남구정장은 "이 후
보가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5년 12월부
터 청와대 사정행정관으로 근무했다"며
"결국엔 본인의 선택이 가장 중요했을 텐
데, 현재 5·18과 광주정신에 비춰 봤을 때
정체성에 적합한지, 시대정신에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고은(高銀) 시인의 '만인보(萬人譜)
에 등장하는 '5·18 사형수' 김중배
(64) 전 국회의원도 얼마 전 이에 가세했
다. 민주평화당 간판으로 광주시장 도전
에 나선 그는, "전두환 정권에 협력했던
자의 사진이 광주 시청에 걸리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명을 토했다. 그랬던 그가 돌
연 출마를 포기했다. 그는 왜 그만두었
까. 아마도 당선 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컸

을 것이다. 전폭 지원을 약속하며 출마를
권유했던 당 지도부에 대한 어떤 섭섭함
도 어느 정도 작용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가 지인에게 밝힌 출마 포기
의 변(辯)은 이랬다. 당선보다는 낙선 가
능성이 많은 상황에서 '5·18사형수 대 전
두환 비서'의 대결이라는 구도가 적지 않
은 부담이 됐다는 것이다. 당에서야 그러
한 구도도 갈 경우 승산이 있다고 봤지만,
선거에서 패할 경우 '5·18 세력의 패배'
로 인식되는 것이 속도록 싫었다는 것
이다. 그럴 경우 외부에서 광주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혹은 광주정신이 퇴색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도 우려하지 않
을 수 없었다고 했다.

여하튼 그의 중도 하자로 광주 시장 선
거는 다시 미팅할 구도가 되고 말았다. 강
력한 경쟁자가 없다 보니 벌써부터 그들
사이에서는 이 후보의 '전국 최다 득표'를
기대하고 있다는 말도 들려온다. 김치국
을 마시든 말든 그거야 일단 결과를 지켜
보기로 하자.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다. 이용섭 후보는 과연 '광주의 정체성'
에 적합한 인물일까. 이에 대해서는 아
무래도 고개를 가로짓는 시민들이 많았
다. 그동안 광주일보가 세간의 오해를 무

릅쓰고, '광주 정신'과 '광주의 정체성'
그리고 '후보들의 역사관'을 강조해 온 것
도 이러한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물론 전두환 정권 시절 청와대 비서관
을 했다는 사실만을 놓고 '전두환 부역
자'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맞는 말이다. '직업
공무원(4급 행정관)으로서 인사 발령에
따라 그곳에서 근무를 했을 뿐'이라면 그
만일 테니까. 이 후보 자신도 "비서 시절
청렴도 제고 업무를 했을 뿐이며 공직에
있는 동안 5·18에 결코 부끄러운 일을 하
지 않았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광주시장 이용섭' 팬클럽을

그래도 아쉬움은 남는다. 아무리 김대
중·노무현 정부에서 장관 등을 거처며 검
증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민주성
지' 광주에서 시장을 하려 든다면 '사죄'
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유감 표명'
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당시 30대 초반
의 젊은 나이여서 잘 몰랐던 데다, 직업공
무원이어서 인사 발령을 거부할 수 없었
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광주학살의
주범 전두환 밑에서 일한 것에 대해 죄송
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광주시장이

되어 그 빛을 갠겠습니다." 그로부터 이런
정도의 입장 표명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
일까?

당선이 유력하다 보니 '수석도 아닌 일
개 행정관을 지낸 사실을 들어 부역으로
모는 것은 억지'라며 최근 그의 편을 드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많은 광주
시민이 피를 흘리며 죽어간 지 불과 몇 년
도 안 되어 '전두환 비서'로 근무했다면,
그 누구라도 그 역사의 무게에 대해 '합리적
인 의심'을 품을 만하지 않은가.

그도 그럴 것이 대조적으로 그와는 아
주 판판이었던 이런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가 누구나 하면, 1978년 사법연수원을
3등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했던 인
물이다. 따라서 당시 판사나 검사가 될 것
이라고 모두가 예상했으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연수원을 마치고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하던 중 5·18광주항쟁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학살의 주
범인 전두환 정권하에서 법관으로 임용
되는 것을 거부하고 변호사의 길을 택했
다. 이 예기의 주인공은 천정배(64) 의
원. 그의 나이 20대 중반이었던 때다.

이용섭과 천정배. 두 사람은 비슷한 나
이였지만 각자 가는 길은 이처럼 확연히
달랐다.

80세 철학자, 100세 철학자 백수연에서 인생을 생각하다

김형석 교수 백수 기념 한국 철학계 원로 간담회 성진기 교수 다녀와



성진기 교수

지난 30일 우리 시대 철학자로 대중의
사랑을 받는 김형석 교수님의 백수를 기념
해 마련된 한국 철학계 원로 간담회에 다
녀왔다. 30명의 교수가 초청됐고, 초청자
는 김광수 교수(한신대 명예교수) 등 '송촌
문화모임' 관계자들이었다. 송촌(松村)은
김형석 교수님의 아호다.

연세대학의 박순영 교수의 사회로 시작
된 기념행사는, 김교수님의 약사 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했고 김형석 선생님의 환영
사가 이어졌다. 필자는 김 교수께서 백세
까지 사신 것 자체보다 그 많은 세월을 살
아오는 동안 겪었을 고난이나 번뇌를 무
슨 힘으로 이겨 냈을까 궁금했다.

김교수님은 인사말 처음부터 철학 공부
의 동행자였고 인간적 친구였던 안병욱,
김태길 교수와의 일화를 고백처럼 말씀했
다. 특히 그 두 분과 세상을 뜨기 전에 나는

대화를 가운데는 죽
음을 예견한, 또는 죽
은 뒤의 부탁 같은 내
용이 있었다. 세상엔
영혼이 자유롭고 열
정이 넘친 교수님으
로 알려져 있지만 인
사말을 진행하는 동
안 내내 김교수님은
기운이 없어 보였고
말씀 중간 중간 드러내지 않은 고뇌가 묻
어났다. 김교수님은 아끼고 좋아하던 두
친구를 먼저 떠나보낸 것보다 아픔이 더
했는지 하나의 이별 얘기는 흐렸다. 가죽
안 아내의 죽음은 무심한 '얘기꺼리'로 드
러내지 못하는 것 같았다.

김교수님은 이번 백수기념 행사를 '송촌
문화모임'의 출발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이 문화모임은 하나의 철학 공동체의 구상
이었다. 특히 원로 철학자들이 한국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자리를
소망하는 듯 했다. 그래서 '한국적 상황을
생각한다'는 주제 하에 30여명의 참석자
들이 모두 한 말씀들을 했다.



김형석(가운데) 명예교수 백수 축하 간담회가 지난 30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렸다. 김 교수가 간담회에 앞서 축하 환영사를 하고 있다. <동아일보 제공>

김형석 교수님의 자제인 김성진 교수
(한림대, 철학)가 1920년대의 그림과 사
진을 보여주며 철학자가 세상을 기개로 볼
 것인가 마음으로 볼 것인가의 화두를 내
 놓아 참석자들의 주의를 모았다. 이어 고
안병욱 교수님의 자제(한림대 교수)가 아
버님 생전의 얘기를 들려주어 인상 깊었

다. 아들이 철학이 뭐냐고 묻자 아버지는
'죽음의 연습이다'라고 답했다는 철학적
에피소드가 범상치 않았다.

김교수님은 참석자들에게 두 권의 책을
선물로 주셨다. '사랑 있는 고생이 행복이
있네'라는 소개 글이 있는 김교수님의 지
나간 인생론인 '백년을 살아보니, 2016'

와 다가올 인생론인 '남아 있는 시간을 위
하여, 201'이다. 다 아는 얘기인데, 김교
수님은 은유하고 은근한 매력의 소유자
다. 언제 한 번이라도 폭언이, 분노가, 증
오가 분출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제 같
은 인상이다. 이런 것들을 소화하고 화해
하는 인격 수련을 짐작케 한다.

그 옛날 이 땅의 젊은이들의 영혼을 전
율케 했던 '영원과 사랑의 대화'라는 책은
지금도 누군가의 서가에 꽂혀 있을 것이
다. 그리고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라는 말은 늙어감 앞에 방황하는
노인들에게 던진 메시지로 인구에 회자하
고 있다. 이 말보다 더 귀가 솔깃하는 말
은, "인생의 황금기는 60~75세"라는 선언
이다.

김교수님은 시인 윤동주와의 학창시절
의 각별한 사연을 기억하고 있다. 동시에
본인의 실존을 위한 신념으로 각인한 듯
산문선 '남아 있는 시간을 위하여' 속에 술
회하고 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중간 생략)/ 모
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부끄럼 없
는 인생 살아가기, 모든 허망한 것 앞에서

의연하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인간이
'털 없는 원숭이'에 그친다면 슬픈 일이다.
무의미한 우연을 중차대한 필연으로 변환
할 줄 모른다면 인간의 삶은 초라할 것이
다. 여기서 필자는 김교수님과 철학적 공
감을 가진다.

우리는 장수시대에 살고 있다. 장수를
버티는 노후를 습득해야 한다. 김교수께
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지 않고 100세를 이
겨내었을 것 같지 않다. 늙어 감은 성숙해
감으로 의미 전환되어야 한다. 노년기를
황금기라는데 동의한다면 그 황금기를 무
엇으로 채울 것인가는 노후를 살아야하는
자들의 몫일 것이다. 필자는 세상과 인간
과의 '화해'를 황금기에 도모할 생각이다.
화해는 굴복이 아니며 통 큰 수용이다. 화
해의 대상은 물론 나 자신을 포함하며 또
삶의 눈물과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으로
써 우리는 좀 더 건강한 삶을 지향할 것
같다.

김형석 교수님 같은 인생의 모범자들이
있어 우리 사회가 인간의 사회로 승화돼
감을 느낀다. 그래서 한 사회엔 '선생님'이
필요하다. <성진기 전남대 명예교수>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회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음 고시혈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식후 2배수식음~ 하루 2번으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OK!!!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한 분 ▶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NAVER 유한바이오 백세생활건강 검색

010-3598-7080

"공장부지 매매" (급 매)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공장
■ 대지 14,916.9㎡, 건물 998㎡(H비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사위장, 화장실 시설 구비

건물일부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임대중

◆ 매매가 28억 ◆ (조정가)

인원산업(주)
010-3605-0214
062) 655-4840

2018학년도 후기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21세기 글로벌 엔지니어 리더에 도전하십시오!!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의 실시 [주1~2회, PM 7~11시]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공학석사 학위과정 졸업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점인수(30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無 논문제)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국제 수행으로 산학간 연구네트워크 구축
-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알찬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과정 시스템운영
 -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입학원서 작성	2018. 6. 4.(월) ~ 2018. 6. 20.(수) 09:00~18:00
입학원서 접수 (제출서류 포함)	우편 2018. 6. 4.(월) ~ 2018. 6. 20.(수) 09:00~18:00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합격자 발표	2018. 6. 4.(월) ~ 2018. 6. 20.(수) 09:00~18:00
전 형 일	2018. 7. 3.(화) 10:00~
합격자 발표	2018. 7. 20.(금) 11:00(산업대학원 홈페이지)
- 모집학과
 - 건축공학/기계공학/산업공학/재료공학/전기전자컴퓨터공학/토목공학
 - 화학공학/환경에너지공학/신환경농업학/식품-외식산업학/지역발전자원공학
 - 전자컴퓨터공학(계량학과)
- 문 의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화] 062-530-1607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GRADUATE SCHOOL OF INDUSTRY TECHN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